

신규 자문위원회 멤버 맞아 들인 다문화 NSW

2025년 2월 28일, 금요일

금일 다문화 NSW는 그 자문위원회에 세 명의 신규 멤버를 맞아 들였는데 공공 정책에 확실히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되고 반영되도록 각 멤버들은 유니크한 전문성과 강한 지역사회 연계를 가졌다.

새로이 임명된 세 멤버들은 다음과 같다.

- 닥터 줄리 림, 중국계 언어교사 교육자이자 연구가로 언어상의 니즈와 언어 서비스에 관한 깊은 인식 개발에 전념. 닥터 림의 여정은 전통언어 보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는데, 이 사명감이 그녀로 하여금 중대 공공 서비스에 존재하는 언어 격차를 좁히는 데 전념하게 하였다.
- 미즈 로즈마리 카리우키 OAM (호주훈장 메달수여자), NSW 경찰 다문화 연락담당관으로 아프리카 이주자 집단과 뉴 사우스 웨일즈 전역에 걸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많은 일을 한 공로가 있다. 카리우키 씨는 또한 호주 다문화 위원회 위원으로 연방정부에 다문화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.
- 쿠샬 비야스, 인도계 변호사로 사회평론가이자 티칭 펠로우인 그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에 매우 열정적이고 뉴 사우스 웨일즈 내 인도 사회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한다. 쿠샬 씨의 정의에 대한 헌신은 지역사회 봉사 및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의 다짐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.

추가로, 현 자문위원회 멤버인 람니크 싱 씨는, 시드니 시크 사회의 존경받는 멤버이며, 연임하도록 재임명되었다.

추가 정보를 원하면 다문화 NSW 웹사이트를 방문한다: <https://multicultural.nsw.gov.au/teams/advisory-board-members/>

다문화 NSW 자문위원회 회장인 닥 칼다스 APM (호주 경찰훈장)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.

“이 번에 새로 임명된 멤버들은 풍부한 경험과 강한 지역사회 유대 그리고 깊은 전문성을 위원회에 더해 주며 뉴 사우스 웨일즈의 다양성을 반영해 줍니다.”

“다문화 NSW 자문위원회는 다문화 장관과 다문화 NSW의 CEO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. 기존 멤버들을 대신하여, 본 위원회는 우리 신규 멤버들 및 자문회에 재임명된 멤버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.”

다문화 NSW CEO 조세프 라 포스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“자문위원회 신규 멤버들의 다양한 일련의 재능과 배경으로 우리가 다문화 NSW 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”

“지역사회를 위한 언어 서비스로부터 옹호에 이르기까지, 새로 임명된 이 멤버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려는 우리의 접근방법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을 가져다 줍니다.”

“우리는 줄리, 로즈마리 그리고 쿠샬의 전문성 및 통찰력을 자문위원회에 더하게 되어 기쁩니다.”

미디어: 탕 응오,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부실장, 0410 338 833